

# 사이비 종교 '비상등' 관리 대책 마련돼야

정혜원 기자 jhw00070@khu.ac.kr  
최예령 기자 hery2020@khu.ac.kr

최근 교내 사이비 종교 동아리와 더불어 포교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통해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신도들을 세뇌해 범죄를 일으킨 사례가 공개되며 교내 사이비 종교 활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온라인에 JMS 동아리가 존재하는 대학 명단이 공개되기도 했다. 현재 공개된 자료는 2개로 우리학교는 해당 동아리가 2018년 기준 제명돼 있었으나 2020년에는 활동 중인 상태로 알려졌다.

이번학기 기준 서울캠퍼스(서울캠) 중앙동아리 수는 46개로 그중 종교 동아리 수는 8개, 국제캠퍼스(국제캠) 중앙동아리 수는 63개로 그중 종교 동아리 수는 5개다. 국제캠은 학생지원센터와 중앙동아리연합회(중동연)가 중앙동아리 및 단과대학 동아리 내 종교 동아리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3년간 사이비 동아리로 신고된 내역은 없었다.

다만 사이비 종교 동아리가 일반 동아리로 위장해 대학생들을 포섭한 사례가 잇달아 나오며 따라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사이비 종교 여부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아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서울캠 종교동아리 CCC는 "이단 종교의 포교 활동은 사칭과 위장을 통해 예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됐다"며 "정확한 소속과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일반 동아리 또는 대학

연합으로 위장한 단체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캠퍼스(양캠) 학생지원센터는 "소속 단과대학이나 학생자치 단체에 공식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사이비 종교 동아리를 파악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며 "학생지원센터 SNS 등을 통한 신고 채널 및 동아리 등록제 같은 새로운 자구책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국제캠 중동연 권용욱(식물환경신소재공학 2019) 회장도 "익명 건의함을 통해 신고받고 있다"며 "종교 동아리의 경우 기존 종교 동아리 대표자들의 추천 서명을 받게 해 중동연 측에서 놓칠 수 있는 사이비, 이단 종교의 동아리 활동을 이중으로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교내 포교 활동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공연하게 지속돼왔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3월 23일 저녁 서울캠 행복기숙사 앞에서 포교 활동을 당한 서울캠 신입생 A 씨는 "직접 겪어보니, 교내에서 사이비 종교 단체가 돌아다닌다는 것이 무서웠다"고 말했다. 교내 포교 활동을 촬영한 사진을 직접 보내온 서울캠 학생 B 씨는 "학교 다닐 때 5번은 본 것 같다"며 "캠스에 신고해도 계속해서 나타났다"고 전했다.

국제캠은 주로 제2기숙사에서 외국어대학으로 가는 길목에서 포교 활동이 이뤄진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이들은 안부를 묻거나 "대학생이면 힘든 건 없냐", "기숙사 살면 외롭지 않냐" 등으로 포교를 시작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해 포교 활동을 경험한 국제캠



양 캠퍼스에서 포교 활동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국제캠의 외국어대(위)와 서울캠의 청운관(아래)은 포교활동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장소다.

학생 C 씨는 "종교 내용이 아닌 MBTI, 심리 및 마음공부 등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며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혀 끝없이 쫓아온다는 점에서 불쾌함을 넘어 두려움까지 느꼈다"고 회상했다.

이번학기에는 국제캠 정문 근처에서 3명이 무리 지어 다니는 포교 단체가 발견됐다. 한 명은 우리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매체 시청과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두 명은 어느 정도 대화가 진전되면 포교하기 시작했다. 이를 목격한 학교 관계자 D 씨는 "해당 단체가 보여주는 콘텐츠는 매우 급진적이며 일부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이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내 포교 활동을 처벌하기는 어렵다. 서울캠 관할인 동대문경찰서 회기과출소 최민호 경위는 "종교는 헌법상 자유로 보장되기 때문에 포교 활동 자체가 민사나 형사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면 처벌이 힘들다"고 밝혔다.

양캠 학생지원센터는 "현재 종교 단체의 홍보 활동은 일부 민원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대학에서 홍보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규제할 수는 없으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만은 철저히 예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최희섭 행재정부총장 역시 "교내 포교 활동 현황을 확인해보고 적절한 조치 방법을 생각해보겠다"고 전했다.

## ▶1면에서 이어짐

이어 "자유무역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경제 보복 조치, 식민 지배에 대한 변함없는 미화, 일본군'위안부' 강제 연행 부정, 독도 영유권 주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을 지적하며 "일본 정부의 태도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평했다. 시국선언문 발표는 서보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끝으로 교수들과 해당 자리에 있던 학생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기고한 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선 교수들의 자유 발언이 이어졌다. 유원준(사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박윤재(사학과) 교수 ▲신명아(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외에 ▲경희총민주동문회 김재현 ▲지소원(사학 2018) 씨의 지지 발언이 뒤따랐다.

박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제3자 변제 방식이 가진 문제점 중 하나는, 이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나 시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앴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한일의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막는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시국선언 사회를 진행한 김진해(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몇몇 교수님들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시국선언 준비를 했다"며 "목소리를 모으고 하나의 결집된 목소리를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학생들이 많이 외줘서 고맙다"고 전했다.

학생 지지 발언을 한 지 씨는 "참여하고 나니 한편으로 후련한 마음도 들고 자부심도 느꼈다"며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강제동원 해법과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규탄하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대학가로 퍼지고 있다. 서울대, 고려대, 전남대 등 대학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2024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수시 축소 정시 확대 지속

정다연 기자 ekdusgood@khu.ac.kr

입학처가 2024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을 발표했다. ▲모집인원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우수자전형 ▲[수시]수능최저학력기준 ▲[정시]수능반영영역 등이 변경됐다.

2022학년도부터 지속되던 수시 축소, 정시 확대의 흐름이 이어졌다. 2024학년도 수시 모집인원은 2,890명, 정시 모집인원은 2,418명으

로 전 학년도 대비 각각 20명 줄고 9명 늘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평가 요소가 변경됐다.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표준화 방안을 적용한다. 해당 방안은 기존 4가지 평가요소에서 3가지 평가요소로 재구조화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평가 요소는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이다.

입학처에 따르면, "항목 간 중첩

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사한 항목을 통합하고 명칭을 변경해 평가의 타당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통 평가요소 및 항목을 새롭게 개편했다"고 전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가 폐지됐다. 이는 지난 2019년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해당 방안에는 20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고,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

만으로 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논술우수자전형은 논술고사 100%로 선발한다. 기존 논술우수자전형은 논술고사 70%와 학생기록부 성적 30%를 합산해 평가했다.

인문/자연을 분할 모집하는 ▲지리학과 ▲한의예과 ▲간호학과 ▲건축학과는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영역을 지정하고, 정시모집에서 인문계열 반영영역을 지정했다. 수시모집의 최

학력 기준은 인문계열 ▲확률과 통계 ▲사회탐구 1과목이며, 자연계열 ▲기하 또는 미적분 ▲과학탐구 1과목이다. 정시모집에서는 인문/자연 분할모집 학과의 인문계열 수능 반영과목은 확률과 통계, 사회탐구 2과목이다.

한편 정시의 광역모집단위가 신설돼 개별 학과 외에도 광역모집단위로 학생 선발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 인원은 오는 5월 공개된다.